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HOPE: PROJECT MIDDLE SCHOOL

가제 : 중학생 호프의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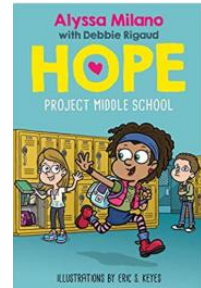
저자 : Alyssa Milano(글), Eric S. Keyes(그림)

출판사: Scholastic Inc.

발행일: 2019년 10월 1일

분량 : 208 페이지

장르 : 성장소설



*** 세상을 바꿔 보기로 결심한 당찬 여학생, 과학자를 꿈꾸는 호프와 친구들이 만들어내는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그린 이야기**

피해자가 더 숨어야 하는 성폭력의 부당한 현실을 전 세계에 알린 ‘미투’ 운동은 2017년, 한 여배우가 자신의 SNS를 통해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용기 있게 드러내고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숨지 말고 당당히 함께 싸울 것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그 주인공인 알리사 밀라노가 우리나라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의 캐릭터 디자이너이자 애니메이터와 손을 잡고 이제 막 세상과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한 여학생의 당찬 도전을 그린 2부작 시리즈를 완성했다. 유니세프 홍보대사로 임명된 후 15년 이상 아동 인권 운동가로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 온 저자는 천체물리학자가 꿈인 열한 살 소녀 호프 로버츠를 통해 여전히 우리 생활 곳곳에 당연한 듯이 남아 있는 차별 문제를 유쾌하면서도 날카롭게 꼬집는다.

아빠가 로켓 개발자인 만큼 어릴 때부터 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호프는 이미 그 관심을 실력으로 인정 받는데 꽤 성공했다. 지난 해에는 케네디 센터에서 주최한 ‘로봇 박람회’에 무려 150미터 높이로 날아오를 수 있는 미니 로켓을 출품해서 1등 상을 수상할 정도였다. 다들 호프의 아빠가 도와주었을 거라고 확신했지만 과학이야말로 호프의 ‘수퍼 파워’였기에 굳이 아빠의 손을 빌릴 필요도 없었다. 과학 못지 않게 좋아하는 만화책 ‘갤럭시 걸’의 주인공처럼 호프는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가장 잘 하는 사람이 되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꿈이 있었다. 호프가 이 꿈을 펼쳐 나가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된 또 한 사람은 바로 꼬마 시절부터 붙어 지낸 친구 사만다였다. 과학과 수학을 사랑하는 호프와 달리 연기 쪽에 관심이 많은 사만다는 서로 무슨 말이든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친구다. 6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 호프는 또 어떤 도전이 나타날까, 하는 기대로 두근대는 마음을 안고 사만다와 함께 등교길에 오른다. 하지만 생각보다 아주 힘겨운,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온다.

가장 먼저 호프를 당혹스럽게 만든 변화는 사만다에게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다는 사실이었다.

방학 때도 수시로 만나서 함께 놀기도 하고 새 학기에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도 공유했기에, 사만다가 연극 클럽에 들어간다는 것까지는 호프도 잘 알고 있었지만, 사만다가 부쩍 바빠지면서 예전처럼 돌이서만 수다를 떨 시간이 거의 없어진 것이다. 게다가 호프는 ‘꿈은 크게 꺾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심화 수업은 전부 신청한 바람에 진도를 따라가느라 진땀을 흘리는 와중에 과학을 향한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과학 클럽에도 들어갔다. 남학생들이 대부분이고 담당 선생님도 남자인 과학 클럽에서 호프와 카밀리아, 그레이스까지 손에 꼽을 만큼 밖에 안 되는 여학생들은 매번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다. 오만하고 시끄럽기만 한 남학생들이 수업을 주도하고 자신들이 제안하는 아이디어는 계속 묵살당하거나 비웃음까지 당하자 잔뜩 화가 난 호프는 이대로 참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유도 없이 여학생들이 무시당하는 꼴을 계속 볼 수는 없었다. 위대한 과학자들의 생애와 업적, 만화책 ‘갤럭시 걸’만 봐도 세상을 바꾼 변화는 아주 작은 도전과 변화에서 시작됐으니까! 호프는 내심 겁도 나고 자신도 없었지만, 아빠가 늘 이야기하는 자신만의 슈퍼 파워를 발휘해서 과학 클럽의 요상한 분위기를 싹 바꿔 놓기로 마음 먹는다.

곧 개최될 과학 박람회에 호프의 클럽에서도 로봇 모형을 출품하기로 하고, 명령을 하면 작은 물건을 집어서 정해진 위치에 알아서 가져다 놓는 로봇을 만든다는 계획도 세워진다. 이미 로켓을 만든 적 있는 호프나 지금까지 만난 그 어떤 친구들보다 과학적인 지식이 깊고 풍부한 카밀리아, 손재주가 뛰어난 그레이스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내지만 아이디어가 채택되고도 그것을 살피우는 일은 남학생들에게 맡겨지고 세 사람은 자질구레한 일만 떠 맡는다. 레고 블록을 집어 올리는 단계에서 로봇이 말을 듣지 않자 호프는 반신반의하는 클럽 남학생들과 선생님 앞에서 며칠만 집에 로봇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면 다 해결해서 오겠다고 호언장담한다. 그리고 며칠 밤을 새우면서 겨우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지만, 성공에 들뜬 나머지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만다. 결국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다 함께 만든 로봇 모형이 와장창 부서지는 사태를 만들고 난 뒤에야 호프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면 정확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결과를 얻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데 급급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동시에 서운하기만 했던 다른 일들도 한꺼번에 정리되기 시작한다. 연극에 폭 빠진 사만다가 무심하다고 섭섭하게 여긴 것, 처음에 과학 클럽에는 발도 들이지 않으려던 카밀리아를 보면서 혼자 오해했던 일들이 떠오르고, 호프는 자신감과 영리함도 과하면 독이 되어 오직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는 중요한 교훈을 배운다. 과연 호프는 다시 한 번 슈퍼 파워를 발휘하여 망가진 로봇 모형을 되살리고 어색해진 사만다와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을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대단한 영웅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랑스러운 인물들을 통해 보여주는 이야기다.

<저자 소개>

앨리사 밀라노(Alyssa Milano)는 아역 배우로 연기 활동을 시작한 배우이자 사회 운동가다. 2003년 유니세프 대사가 된 후부터 현재까지 아동의 인권 운동에 앞장서 왔다. 트위터에서 미투 해시태그를 널리 알린 인물로도 유명하다. 2017년에는 타임 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다.

제목 : MY EYES ARE UP HERE

가제 : 거기 말고 내 눈을 봐

저자 : Laura Zimmerman

출판사: Dutton Books

발행일: 2020년 봄

분량 : -

장르 : 성장소설



*** 급격한 신체 변화로 세상과 담을 쌓기 시작한 그리어 월시 - 잃어버린 목소리와 세상과의 균형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을 폭소와 위트, 가감 없이 솔직한 표현으로 그린 데뷔작**

열다섯 살에 키 152 센티미터, 체중 52 킬로그램인 그리어의 신체 사이즈는 아주 평범한 편이다. 하지만 9학년이 시작되기 전, 여름 방학에 그리어의 몸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다른 부분은 평균적인 속도로 자라는데 가슴만 폭풍 성장을 한 것이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기 시작한 가슴은 H컵 사이즈에 이르렀다는 것 외에 정확한 크기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단 몇 달 사이에 ‘가슴이 머릿통보다 큰 애’가 된 그리어가 줄자를 들고 크기를 재려는 모든 시도를 철저히 거부했기 때문이다. 사람들 앞에 나서길 좋아하고 무슨 일을 하건 시선을 받아야 더 신이 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누가 쳐다보거나 주목하는 것을 별로 즐기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지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확히 후자에 속하는 그리어에게 이 급격한 변화는 충격 이상이었다.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는 사람들은 크다는 표현보다 ‘거대하다’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는 그리어의 가슴에 시선이 쏠렸고 최대한 예의를 지키는 사람들도 그리어가 돌아서자 수군대기 일쑤였다. 존재감 없이 살고 싶었지만 사람을 싫어하지는 않았던 그리어는 그 때부터 누구도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상의는 여성복도 아닌 남성복 XXXL 사이즈 셔츠만 입기 시작했다. 몸매를 드러내지 못해 안달인 또래 친구들과 달리 포대나 다름 없는 옷 속에 온 몸을 감추고 사는 딸을 보면서 엄마는 씬 없이 잔소리했지만 그것 외에는 거대한 가슴을 감출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사람들과의 물리적인 접촉과 노골적인 시선을 차단한 이후부터 그리어는 습관적으로 사람에게 대한 기대를 아예 안 하는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 10월, 학기가 시작되고도 한 달 이상이 지난 애매한 시기에 같은 학교로 전학 온 잭슨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다.

잭슨은 첫 만남부터 남달랐다. 시카고 시내와 조금 떨어진 작은 동네에서 태어날 때부터 줄곧 살아온 그리어는 새로 이사 오는 주민들의 정착을 돕는 ‘전문 상담가’인 엄마 손에 이끌려 익숙한 스타벅스로 향했다. 새 이웃들이 낯선 동네에 최대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천직처럼 여기는 엄마는 그리어와 비슷한 또래의 자녀가 있는 가족이 이사를 올 때면 무조건 그리어를 대동해서 그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도록 했다. 열다섯 살쯤 되면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경우가 드물고 억지로 시키려고 하면 다들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싸운다는 것을 그리어도 잘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 단짝 친구인 매기는 만사에 화가 나 있는 타입이고 뭐

든 마음에 안 들면 상대가 부모님이건 학교 선생님이건 맞붙어 따지고 싸워야 직성에 풀리는 성격이라 그 광경을 수도 없이 목격한 그리어는 자신도 필요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만, 엄마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대였다. 포기가 빠른 그리어는 진 빠질 때까지 엄마와 싸워보야 더 진만 빠진다는 사실도 잘 알기에 이번에도 따라 나섰다. 보통 그렇게 따라온 새 이웃의 아이들도 억지로 끌려온 경우가 대부분이라 부모님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동안 똥한 태도로 대충 시간을 때우는데, 잭슨은 처음 인사를 나눌 때부터 활짝 미소를 지으며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 학기 중간에 나타난 자신을 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점심 시간에 앉을 자리라도 찾을 수 있을지 솔직하게 고민하고 독일인 아버지 덕분에 유창한 독일어 실력으로 그리어가 배를 잡고 웃게 만들 만큼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엄마를 안 따라왔으면 어쩔 뻔 했나, 싶을 정도로 잭슨에게 깊은 호감을 느낀 그리어는 그 후로도 잭슨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은근히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 하지만 남들보다 배는 큰 가슴 때문에 골치 아픈 일 투성이인 학교 생활은 그리어가 처음 느낀 그 설렘을 즐길 틈을 주지 않았다. 언제까지 감추고 도망만 다녀야 할까? 그리어는 그런 상황에 점점 지쳐간다. 무엇보다 예기치 않게 학교 배구팀에 들어가게 된 그리어는 험령한 곳이라곤 전혀 없이 온 몸에 찰싹 달라 붙는 유니폼과 운동 특성상 수시로 팀원들과 몸이 부딪히고, 서로 겨ான 상황이 반복되자 패닉 상태에 빠진다.

그리어가 이렇게까지 신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것은 신기하고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시선 때문만은 아니었다. 지난 해 여름, 가족 모두가 바닷가로 휴가를 떠나 고래를 보러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갔던 날 투어 안내인들은 안전 규정상 구멍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리어가 일부러 큰 사이즈를 골라 입어도 조끼가 채워지지 않았고, 모두가 당황해서 고래도 입을 수 있을 만한 초대형 조끼를 찾아낼 때까지 배는 출항도 하지 못했다. 우스꽝스러울 만큼 큰 조끼는 최대한 조여도 몸에 맞지 않아 그리어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배 위에서 모두가 코 앞에서 몸을 뒤집는 고래를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사진을 찍는 내내 이런 몸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와 흑시라도 바다에 떨어지면 이 흉측한 구멍 조끼가 제 기능을 못할 테니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싸워야 했다. 바란 적도 없고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커다란 가슴이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든 순간이었다. 그 일 이후 그리어는 더 남들의 시선과 접촉을 피하게 된 것이다.

싫은 일이 생겨도, 억울한 일을 겪어도 싸우기보다 빨리 포기하는 그리어는 모든 일에 먼저 나서고 먼저 싸우는 엄마나 매기에게 늘 답답하게 살지 말라는 잔소리를 들었지만 잭슨을 향한 마음이 커지면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자신이 답답해지기 시작한다. 아무런 편견이나 악의 없이 그리어의 유쾌한 유머 감각에 반해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그를 바보 같은 이유로 자꾸 밀어내기만 하던 그리어는 서서히 마음을 열고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깨닫기 시작한다. 지극히 현실적인 사건들과 흡입력 있는 글로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하는 매력적인 소설이다.

<저자 소개>

로라 짐머만(Laura Zimmerman)은 미네아 폴리스에서 글을 쓰고 있다. 위 소설이 데뷔작이다.